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음 8월 25일) 제23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과학축전 개막식
지난 2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4회 전북도 과학축전 개막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드론과 레이저, 로봇을 이용한 개막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도 과학축전은 22일까지 열렸다. <관련기사 2면>

탄소산업 비전 세부실행계획 수립

전북도, 효성 투자계획 실현 투자협약 TFT 운영

내년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진흥원 설립 추진

전북도가 효성의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일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를 위해 효성 투자협약 TFT 운영, 5년 단위 탄소산업 종합계획 수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날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효성과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소재산업 등 핵심소재 산업에 대한 3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2028년까지 1조4436억원을 투입, 3대 발전전략 및 9개 과제를 추진해 전북을 세계 수준을 갖춘 한국의 탄소산업 수도로 육성하는 비전을 담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수립한 세부실행계획은 발전전략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으로 첫째 효성 투자협약 TFT를 운영한다.

TFT의 운영을 통해서 효성의 투자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추진하고 효성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인한다.

그리고 효성의 투자협약을 탄소산업 발전위원회의 과제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지원 사항과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 효성의 투자계획 이행을 완성할 방침이다.

둘째로 전북도는 2020년도에 5년 단위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탄소산업 종합계획에는 발전전략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소재 시장 다변화, 소재 적용분야 확대 등을 포함해 다양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적 장비 구축,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일정 등을 담은 예정이다.

이후 5년마다 탄소산업 종합계획을 보완·수립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고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셋째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탄소소재법의 개정을 추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전북의 탄소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탄소소재법 개정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넷째로 전북도는 국내 유일의 탄소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소재법의 3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탄소소재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의 시제가 없지만 전북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충분한 자

격을 갖추고 있어 전문기관 지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라북도가 탄소소재산업에서 가지는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난 2일 지정·승인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활용하여 탄소소재 기업의 집적화 기반을 달성하고 다양한 탄소소재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는 70여개의 탄소기업과 20여개의 연구개발(R&D)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한 세부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탄소소재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켜 전북을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중형급 태풍 '타파' 대비 만전

5면 - 전북대 "이제는 JEONBUK NU"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가 뜬다

전주시, 전북경찰청·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약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 발대식도 함께 진행

오늘부터 주요 교통안전 취약지역서 시범사업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키로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도 지키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중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시행되는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은 전주시가 전북지방경찰청,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전주지역 교통안전 취약지역 20개소에서 250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교통안전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참여한 5개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지난 2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힘쓰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사업 발대식도 진행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가 국제안전도시답게 아동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은 시니어클럽 3개소(전주, 서원, 효자)와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송효철 기자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26일 개최

국제금융도시 전북 건설을 위해 세계 금융리더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금융역신의 세계적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북금융의 미래를 진단한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혁신 성장의 중심지인 전북을 도는 슬로건을 걸고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라고 불리며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전설의 투자 전문가가 비랜트 인터테스트의 짐 로저스 회장이 금융도시로 새로이 발돋움하고 있는 전주를 찾아 이 자리를 빛낸다.

송하진 도지사는 "세계 금융리더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진단할 열린 토론의 장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JCTV 지방자치TV

|지|역|문|화|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YouTube
KakaoTV
NAVER
Google
Ddum
ch.224
tv ch.253
B tv ch.285

JJCTV전북총국 : jjctvjeonbuk.com TEL :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222 승주빌딩 5F

JJCTV본사 : jjctv.co.kr TEL :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